

‘균특법 개정’ 완도 주민들 화났다

섬 개발 대폭 축소·예산 삭감 위기 군의회 반대 결의안 등 강력 대응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 추진으로 도서개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어 완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지자체와 군의회,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1일 제 173회 정례회의에서 균특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 “균특법 개정은 특수 도서지역 등이 제외돼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며 “도서지역 개발도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식 완도군수와 차용우 군의회 의장, 의원, 공직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도서 특수지역을 특수 상황지역에서 배제하고, 법 개정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도서를 ‘성장촉진 지역’과 ‘특수상황 지역’으로 양분할 경우 도서지역의 낙후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정부안은 도서지역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도서개발 촉진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서로 형성된 완도군에 지원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 예산의 국비지원이 대폭 삭감되고, 향후 도 서지역도 일반지역(육지)과 동등하게 취급돼 매년 지원여부가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특법 개정 반대에는 도서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도서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을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령에서 조

차 ‘균형’을 삭제해 지역발전을 완전히 포기했다”며 “도서지역을 특수지역에서 제외, 개발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서지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특수상황 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개발 계정의 예산비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고흥군의회 등 도서지역 기초의회 역시 균특법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상정이 무산됐으며, 3일 재상정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 노안 미나리 수확 한창



나주 노안에서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노안 미나리는 14개 농가에서 연간 7천여톤을 수확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로 판매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완도산 광어 많이 드세요”

郡, 연예인 축구단 ‘슈퍼스타즈’ 초청 친선경기

완도군이 지역 특산물인 광어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7일 완도 종합 운동장에서 연예인축구단(단장 정준호) ‘슈퍼스타즈’ 초청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날 연예인축구단은 광어 시식회와 팬사인회를 갖고 광어사랑팀과 전복사랑팀으로 구성된 완도군 동호인 축구팀과 친선 경

기를 벌이게 된다.

이번 친선경기에는 유오성, 임대호, 오만석 등 25명의 유명 연예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초청경기를 통해 광어사랑 소비촉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화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본격 가동

화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한천면 가마리 산 92번지 일원에 세워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 전남도의 사용승인을 받아 2일부터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이날부터 하루 33.3t의 폐기물을 반입, 매립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이곳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위탁처리하게 된다.

화순군은 폐기물이 반입되면 하루에 15cm씩 복토와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상 하자가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쳐 1차 처리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된다.

한편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려극점 끝에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화순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사가 마무리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장학재단 모금액 100억 넘어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황주홍)이 4년만에 모금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올해 강진향우회와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주민, 기관단체, 독지가, 공무원 등 3천 717명이 참여해 15억1천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학재단의 기금 모금액은 지난 2005년 21억4천만원에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20억6천만원, 2007년 20억1천 150만원 등 3년 연속 2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모금액 15억1천 200만원과 지난해 이월금 32억 원, 군 출연금 10억원 등 모두 119억 원이 조성됐다.

재단측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올해에는 명문학교지원 10억원, 축구 꿈나무 육성 2억원,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1억 1천만원 등 총 20억 1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는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 같은 장학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4년 전 정원미달로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역 모든 고교가 정원을 모두 채우게 돼 학교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진고등학교의 경우 3년 연속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성요셉고교도 개교 45년만에 서울대 첫 합격자를 배출했다.

황주홍 군수는 “25만 군민과 향우가 헌연일체가 돼 장학금 100억원 달성 목표를 이루게 됐다”면서 “교육분야를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곡성농협, 고양서 ‘곡성 농특산물 특별 판매전’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이원호)는 곡성농협(조합장 배기섭)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대형 유통센터인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곡성 농특산물 특별판매전’을 전개하는 등 수도권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사진> 이번 특별전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의 우수농산물

을 널리 알리기 위해 쌀과 감, 사과, 대추, 멜론 등 10개 품목을 선정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배기섭 조합장은 “곡성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어 판매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와 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함평 월야고·골프고 인기몰이

보건 관련 등 특성화...입학 희망자 대거 몰려

특성화 고교인 함평 월야종합고등학교와 골프고가 2009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유일의 보건고등학교로 개편되는 월야종합고등학교는 보건간호과와 의료전자과의 72명 신입생에 125명이 지원, 1.74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 1.2 : 1 보다 높은 경쟁률로 대다수 전남지역 농촌 고등학교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신입생 모집에는 광주·

전남 뿐 아니라 전국 각지 19개 지역 55개교의 우수 학생들이 지원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특성화고로 개편돼 2008년도부터 첫 신입생 모집에 나선 월야종합고는 2009년도부터 교명도 전남 보건고등학교로 변경되는 등 특성화고 개편 2년 만에 폐교 위기에 서 보건관련 명문 전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난 2002년 골프고로 변신한 함평골프고도 2009년도 골프관리과 신입생 모집 결과 48명 모집에 56명이 지

원했다.

함평 골프고는 LPGA 브리티시 여자 오픈 최연소 챔피언 등 LPGA 투어 3회 우승을 비롯해 올 시즌에서만 11승을 차지하며 세계 여자프로 골프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신지에 선수의 출신 학교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함평 골프고의 성공요인은 골프선수 육성 뿐 아니라 골프장 코스 및 장비 관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진로 폭을 넓히고 저렴한 비용에 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교과 과정을 개설한 덕분에 풀이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영암군 내년 예산 3천억 돌파

전남 10위권 진입

영암군의 내년 예산 규모가 전남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영암군은 최근 올해보다 23.2% 늘어난 3천18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는 민선 첫해인 1995년 713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4년 만에 무

려 2천47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06년 민선 4기 출범 당시 예산 1천921억원과 비교하면 1천6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내년 예산이 3천억원선을 돌파한 데다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0위권에 진입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김일태 영암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헌연일체가 돼 수시로 중앙부처

를 방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각종 행정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많은 상 사업비 등을 확보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평가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분야별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했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리첸 RITCH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점 **OPEN**

062-2815-2222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기분 ₩19,500

경치가 있는일까지 푸-욱 계속됩니다

서울관광카바레나이트

(대인용 롯데백화점 뒤/예약:062 226 9334)